

한국어교재의 지시어 분석*

- 지시관형사와 지시대명사를 중심으로 -

채숙희**

|| 차례 ||

- I. 서론
- II. 한국어 지시어의 유형과 용법
- III. 목표항목으로서의 지시어
 - 1. 지시어 항목의 유형과 배열
 - 2. 지시어 항목의 교수-학습 내용
- IV. 한국어교재 텍스트의 지시어
 - 1. 지시관형사
 - 2. 지시대명사
- V. 결론

【국문초록】

본고는 한국어교재의 지시어 제시 양상을 전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시어와 관련된 실제적인 교재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교재에서 명시적으로 목표항목으로 설정된 지시어들에 대한 검토 외에, 본문, 듣기 지문, 과제 등 한국어교재 내의 다양한 텍스트에 포함된 지시어들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와 비교 분석한다. 지시어가 교재의 목표항목으로 설정된 경우, 지시어는 초급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초급 이후에 이들 상호 간의 관계나 용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이 어려워 보인다. 또한 지시대명사 ‘이, 그, 저’의 경우 대부분의 교재에서 목표

* 이 논문은 인천대학교 2015년도 자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항목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지시어의 용법과 관련해서는 화맥지시를 위주로 지시어의 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용법에 대한 고려는 다분히 부족한 것으로 파악된다. 한국어교재 텍스트에 사용된 지시어들의 경우, 유형과 상관없이 모두 모어화자 자료보다 낮은 출현빈도를 보이지만, 출현빈도별 순위는 동일하게 나타난다. 지시어의 용법별로 구어성과 문어성의 측면에서 한국어교재의 텍스트가 지시어를 적절히 제시하고 있는지를 검토하였을 때, 지시어들은 유형별로 상이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측면에서 모어화자 자료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용법은 지시관형사 ‘그’의 상맥지시 용법, 지시대명사 ‘그것’의 상맥지시 용법, 지시대명사 ‘여기’의 텍스트지시 용법, 그리고 지시대명사 ‘거기’의 화맥지시 용법이다.

주제어 : 한국어교육, 한국어교재, 지시어, 용법, 텍스트, 구어, 문어

I. 서론

한국어교재에서 지시어는 초급 초반부터 목표항목으로 제시되며, 초급에서 고급에 이르기까지 교재 전반에 걸쳐 빈번히 출현한다. 이는 지시어가 의사소통 상황에서 자주 그리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기 때문인데, 따라서 학습자의 지시어 사용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지시어의 유형과 용법에 관한 명확한 제시와 적절한 배치가 요구된다.

그간의 한국어 지시어 교육 연구에서 교재 분석만을 수행한 연구는 없었으며, 관련 연구에서 교재 분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어 지시어 교육 관련 연구는 크게 학습자의 지시어 습득 양상에 관한 연구, 지시어 오류에 관한 연구, 지시어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는데, 학습자의 지시어 습득 양상에 관한 연구로는 박선희(2007), 왕교하(2011), 왕교하·박동호(2011), 진은영(2012)가 있으며,¹⁾ 지시어 오

1) 이들 논문에서는 주로 설문조사의 방법을 통해 한국어 학습자와 한국어 모어화자의 지시어 사용양상을 비교 분석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박선희(2007)에서는 영어권 학

류에 관한 연구로는 양명희(2003)과 홍연정(2012가), 홍연정(2012나)가 있다.²⁾ 지시어 교육 내용이나 교육 방안에 관한 연구로는 조신(2011), 조효염(2013), 왕학웅(2014), 안광미(2015)가 있다.³⁾ 한국어교재의 지시어에 관한 분석은 이들 연구의 내용 가운데 일부로 이루어지기는 하였으나, 모두 목표항목으로 설정된 지시어만 대상으로 하여 설명과 예시를 살피는 수준에 머물렀다. 목표항목으로 제시된 이후 교재의 텍스트에서 지시어가 실제로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분석한 연구는 없어서, 학습자들이 목표항목이 아닌 지시어들을 어떻게 접하고 이해하는지에 대한 점검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고에서는 지시관형사와 지시대명사를 중심으로 하여⁴⁾ 한국어교재에서 지시어가 어떻게 제시되고 있는지를 전반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지시어 교육의 시사점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본고에서는 교재에서 명시적으로 목표항목으로 설정된 지시어들에 대한 검토 외에, 본문, 듣기 지문, 과제 등 한국어교재 내의 다양한 텍스트에 포함된 지시어들을 분석함으로써 한국어교재의 지시어들에 대한 실제적이고 전반적인 검토를 수행할 것이다. 또한 한국어교재 텍스트를 일종의 말뭉치로 보

습자의 지시어 사용양상을, 왕교하(2011)과 왕교하·박동호(2011)에서는 중국어권 학습자의 지시어 사용양상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진은영(2012)에서는 일본어권 학습자의 지시어 사용양상을 분석하였다.

2) 양명희(2003)에서는 영어권 학습자의 시험과 작문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지시어 오류를 분석하였으며, 홍연정(2012가)와 홍연정(2012나)에서는 학습자의 작문 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한국어 학습자의 지시어 오류를 숙달도와 모어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3) 이들은 모두 중국어권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을 모색한 논문들이다.

4) 지시용언의 경우 한국어교재에서 목표항목으로 제시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지시관형사와 지시대명사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본고에서 분석한 5종의 교재 가운데 지시용언이 목표항목에 부분적으로라도 포함된 경우는 『연세 한국어』 4급의 ‘그리고 보니’, ‘그렇다고 -을 수는 없지요’가 유일하다.

아 그 분석 결과를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어교재 텍스트가 지시어와 관련하여 모어화자 자료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해 볼 것이다. 이러한 분석에 있어서는 용법과 텍스트범주에 따른 특성을 함께 비교해 봄으로써 구어성과 문어성의 측면에서 한국어 교재의 텍스트가 지시어를 어떻게 제시하고 있는지도 검토할 것이다.

II. 한국어 지시어의 유형과 용법

한국어 연구에서 지시어는 일반적으로 지시의 기능을 수행하는 ‘이’, ‘그’, ‘저’나 이를 포함한 단어를 가리킨다.⁵⁾ 민경모(2008)에서는 한국어 지시어가 수행하는 지시의 기능이 언어 표현이 지시물의 위치와 맺는 관계와 관련된 ‘직시(deixis)’의 개념과 텍스트의 언어 표현과 맺는 관계와 관련된 ‘참조(reference)’의 개념을 모두 포함하는 것이라고 파악하였다.⁶⁾

한국어의 지시어에는 지시관형사, 지시대명사, 지시용언이 포함되는데, 지시대명사의 경우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외에 ‘이분, 그분,

5) ‘지시어’ 외에 ‘지시사’라는 용어도 자주 쓰이나, 이는 주로 ‘이, 그, 저’만을 가리키며 (김일웅 1982:79, 장석진 1984:121, 장경희 1989:5, 양명희 1998:76), ‘이, 그, 저’가 포함된 단어를 가리킬 때는 ‘지시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남기심·고영근 1985/2014:416, 박영환 1991:11, 신지연 1998:14). 그 외, ‘가리킴 말’(장경희 2002), ‘지시표현’(장경희 2004)과 같은 용어도 쓰이는데 이들은 그 지시 범위가 ‘이, 그, 저’와 관련된 형태를 넘어선다.

6) 따라서 민경모(2008)에서는 ‘이, 그, 저’를 포함하고 있더라도 ‘직시’나 ‘참조’의 기능 중 어느 하나가 결여되어 있는 감탄사와 접속부사는 지시어의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본고도 이러한 관점을 따라 다음과 같은 예들은 논의에서 제외한다.

그 병이……그 뒤더라……생각이 잘 안 나는데…… (『서강 한국어』 5A p.109)
저기, 잠깐만요. 그럼 또 며칠을 기다려야겠네요. 사지 말걸……. (『서울대 한국어』 3A p.128)

저분, ‘이쪽, 그쪽, 저쪽’ 등 ‘이, 그, 저’를 포함한 다양한 형태가 존재한다.⁷⁾ 지시관형사에는 ‘이, 그, 저’가 있으며, 지시용언에는 지시동사 ‘이러다, 그러다, 저러다’, ‘이리하다, 그리하다, 저리하다’와 지시형용사 ‘이렇다, 그렇다, 저렇다’, ‘이러하다, 그러하다, 저러하다’가 있다.⁸⁾

장경희(1980)에서는 지시어의 용법을 ‘실재적 지시’, ‘기호적 지시’, ‘상념적 지시’의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실재적 지시’는 담화가 이루어지는 장소⁹⁾에 현존하는 대상을 지시하는 용법이고, ‘기호적 지시’는 어떤 대상을 뜻하는 기호가 어디에 위치하는가에 따라 지시하는 용법, 즉 담화에 전술된 대상을 언급하는 용법이며, ‘상념적 지시’는 화자와 청자의 마음 속에 있는 대상을 지시하는 용법이다.

(1) 가. (화병이 화자 가까이에 있고 청자도 그걸 쳐다보고 있음.) 인 화병
어때?

나. 영희가 이번 시험에 일등을 했어. 인 말을 오해하지는 마.

다. 언니, 그 여자 이름이 뭐지? 작년에 해수욕장에서 만난 그 여자 말
이야.

장경희(1980)에서 제시된 위의 예들 가운데 (1가)는 지시관형사 ‘이’가 ‘실재적 지시’로 쓰인 예이고, (1나)는 지시관형사 ‘이’가 ‘기호적 지시’로

7) 지시대명사의 목록은 연구마다 차이가 있으며 사전 처리도 동일하지 않다. 민경모(2008)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 ‘이것, 그것, 저것’과 ‘여기, 거기, 저기’를 제외하고 ‘이, 그, 저’에 명사가 결합한 형태는 모두 지시관형사에서 다루고 있다. 본고에서도 같은 처리 방식을 따른다.

8)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러다’류를 ‘이리하다’류의 준말로, ‘이렇다’류를 ‘이러하다’류의 준말로 처리하고 있으나, ‘이러다’류가 ‘이리하다’류의 준말이라는 음운론적인 근거는 찾기 어렵다(신지연 1998:53).

9) 장경희(1980)의 용어로는 ‘화의 장’.

쓰인 예이다. (1다)는 지시관형사 ‘그’가 ‘상념적 지시’로 쓰인 예이다.

김일웅(1982), 장석진(1984), 신지연(1998) 등 이후의 연구에서도 이러한 용법 분류는 용어의 차이만 있을 뿐 지속적으로 유지된다.¹⁰⁾ 민경모(2008)의 경우 각 용법에 대해 ‘화맥 참조’, ‘문맥 참조’ ‘상맥 참조’로 칭하고 있는데, 이는 지시대상의 위치를 명확히 보여주며 세 유형의 관계를 잘 드러내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화맥’, ‘문맥’, ‘상맥’이라는 용어를 쓰되, ‘참조’¹¹⁾보다는 일반적으로 널리 쓰이는 ‘지시’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각 용법에 대해 ‘화맥지시’, ‘문맥지시’, ‘상맥지시’로 부르기로 한다.

민경모(2008)에서는 장경희(1980) 이래 지속적으로 논의되어 온 세 가지 용법 외에, ‘연결 참조’와 ‘텍스트 참조’라는 용법도 다루고 있다. ‘연결 참조’는 지시관형사 ‘이, 그, 저’의 용법으로, 지시관형사의 지시 대상이 어휘적 응집 관계를 가지지 않는 피수식 체언에 의미적으로 연결되어 지시관형사의 수식 명사구 전체가 특정화되는 경우이다.

- (2) 또 한편에선 대량 생산되는 세탁기가 시장을 통해 각 가정마다 보급되었다. 세탁기는 그 기능과 세련미를 더해가며 날로 혁신을 거듭한다.
(민경모 2008:148)

10) ‘실재적 지시’에 대해서는 ‘현장지시’(김일웅 1982), ‘화시적 지시’(장석진 1984), ‘상황 지시’(신지연 1998, 장경희 2002), ‘현장 지시’(장경희 2004), ‘화맥 참조’(민경모 2008)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으며, ‘기호적 지시’에 대해서는 ‘조용지시/문맥지시’(김일웅 1982), ‘언어적 지시’(장석진 1984, 신지연 1998), ‘언어 맥락적 지시’(장경희 2002), ‘문맥 참조’(민경모 2008)와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다. ‘상념적 지시’의 경우, ‘개념지시’(김일웅 1982), ‘상맥 지시’(신지연 1998, 장경희 2002), ‘상맥 참조’(민경모 2008)과 같은 용어가 사용되었다.

11) 민경모(2008)에서는 ‘지시’라는 용어 대신 ‘참조’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지시관형사 ‘이, 그, 저’가 단독으로 지시 관계를 이루지 못하고 이들이 수식하는 명사구 구성이 지시 대상과 지시 관계를 이룬다는 점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민경모 2008:47).

위의 예에서 ‘그 기능’은 ‘기능’의 외연의 집합 중 어떤 특정 ‘기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앞서 제시된 냉장고라는 사물이 지닌 기능’으로만 해석된다. 이때 ‘기능’을 수식하는 ‘그’의 용법은 기존의 세 가지 용법 어디에도 속하지 않으며 새로이 도입할 필요가 있는바, 이를 민경모(2008)에서는 ‘연결 참조’로 부르고 있다.

‘텍스트 참조’는 지시대명사 ‘여기’의 용법으로, 작자/화자가 텍스트/담화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기호처럼 파악하여, 독자로 하여금 지시사의 해석을 위해 문맥이 아니라 텍스트/담화의 전체 또는 일부를 기호적으로 파악하게 하는 용법이다.

(3) 가. 시작하기 전에!

오랜 시간 사용 시에는 USB 키보드를 연결하여 사용하면 편리합니다. 여기서는 메모장에 문자를 입력하는 방법을 예로 설명합니다. 먼저 시작>모든 프로그램>보조 프로그램>메모장을 눌러 실행합니다.

(민경모 2008:190)

나. 본 연구에서는 전래의 가치로 여겨지던 가족주의와 유교적 가치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조사하였다. 여기서는 유형별로 이들 가치관에 대한 포용정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민경모 2008:191)

(3가)에서 ‘여기’는 사용설명서 자체를 가리키고, (3나)에서 ‘여기’는 텍스트 전개 중 현재의 지점을 가리킨다. 이들은 문맥에 지시대상이 없다는 점에서는 화맥지시로 볼 수도 있으나, 독자가 같은 공간에 존재하지 않고 텍스트 자체를 메타적으로 가리키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문맥지시와는 거리가 있다. 이와 같은 지시의 용법을 민경모(2008)에서는 ‘텍스트 참조’로 규정하여 전통적인 용법과는 구분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전통적인 분류에 따라 지시어의 용법을 기본적으로 ‘화맥지시’, ‘문맥지시’, ‘상맥지시’의 세 가지로 나눈다. 일부 지시어에 대해서는 민경모(2008)에서 새로이 도입한 ‘연결지시’와 ‘텍스트지시’의 용법을 추가적으로 적용할 것이다.

III. 목표항목으로서의 지시어

여러 한국어교재에서 지시어는 명시적인 목표항목으로 제시되어 있다. 여기에서는 목표항목으로 제시된 지시어들을 대상으로 하여 지시어 항목의 유형 및 배열, 그리고 구체적인 교수-학습내용에 대해 검토해 볼 것이다. 본고에서 분석대상으로 삼은 교재는 총 5종으로, 고려대학교 한국어문화교육센터의 『재미있는 한국어』, 서강대학교 한국어교육원의 『서강 한국어』,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서울대 한국어』, 연세대학교 한국어학당의 『연세 한국어』, 그리고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의 『이화 한국어』 시리즈이다.¹²⁾ 이들 교재는 국내의 규모 있는 교육기관에서 개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개발 기관 외의 국내외 여러 기관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지시어 항목의 유형과 배열

분석대상으로 삼은 5종의 교재 가운데, 『고려』를 제외한 4권의 교재에서 ‘문법’ 또는 ‘문법과 표현’ 등 문법 관련 교수항목에 지시어를 포함시키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12) 기술의 편의를 위해 이하 『고려』, 『서강』, 『서울』, 『연세』, 『이화』와 같이 표기한다.

〈표1〉 지시어 관련 문법항목의 유형과 배열

교재	지시관형사	지시대명사		
	이, 그, 저	이것, 그것, 저것	여기, 거기, 저기	이, 그, 저
『고려』	-	-	-	-
『서강』	이/저/그 (2A, 7과)	이게, 저게 (1A, 준비2) 이/저/그 (2A, 7과)	이/저/그 (2A, 7과)	-
『서울』	이[그, 저] N(1A, 8과)	이거는[그거는, 저거는] N이에요/예요 (1A, 2과)	여기가 N이에요/예요 (1A, 4과)	-
『연세』	이, 그, 저 (1-1, 2과1)	이, 그, 저 (1-1, 2과1)	-	-다 보니 그로 인해 (5-2, 8과1)
『이화』	이, 그, 저 (1-1, 4과)	이, 그, 저 (1-1, 4과)	-	-

5종 교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문법항목으로 설정한 지시어는 지시관형사 ‘이, 그, 저’뿐이며,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의 처리는 교재마다 차이가 있다. 『서울』의 경우 ‘이것, 그것, 저것’을 별도의 문법항목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연세』와 『이화』는 지시관형사 ‘이, 그, 저’를 제시하면서 ‘이것, 그것, 저것’을 예문에 포함시켜 별도의 설명 없이 부수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서강』의 경우, 지시대명사 ‘이것’과 ‘저것’만 1급 초반에 제시하고, 지시관형사 ‘이, 그, 저’를 2급에서 제시하면서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 모두를 간략한 설명과 함께 다루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지시대명사 ‘여기, 거기, 저기’의 경우 『서울』과 『서강』에서만 문법항목으로 다루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1급에서 ‘여기가 N이에요/예요’ 아래에 다루고 있으며, 『서강』에서는 2급에서 지시관형사 ‘이, 그, 저’ 아래에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을 함께 제시하면서 부가항목으로 ‘여기, 거기, 저기’에 대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지시대명사 ‘이, 그, 저’의 경우 문법항목으로 설정된 경우가 거의 없는 데, 『연세』에서 지시대명사 ‘그’가 포함된 ‘-다 보니 그로 인해’를 5급에서 다룬 것이 유일하다. 지시대명사 ‘이’와 ‘저’의 경우 어느 교재에서도 문법항목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학습자들이 문법항목을 통해 [이], [그], [저] 세 계열의 존재 및 관계, 그리고 그 용법을 명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상과 같이 검토하였을 때, 한국어교재에서 지시어는 초급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¹³⁾ 초급 이후에 학습자가 이들 상호 간의 관계나 용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지시대명사 ‘여기, 거기, 저기’는 문법항목에서 제시되지 않고 있는 경우도 있어 지시관형사 ‘이, 그, 저’나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과의 관계 파악이 쉽지 않다. 지시대명사 ‘이, 그, 저’의 경우 대부분의 교재에서 문법항목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으며, 제시된 일부 교재에서도 고급에서 ‘그’만 부분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어 그 체계나 용법의 파악이 어려울 것으로 짐작된다.

2. 지시어 항목의 교수-학습 내용

1) 지시어의 용법

지시어의 용법은 초급에서 지시관형사 ‘이, 그, 저’ 또는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을 문법항목으로 다룰 때 함께 제시되는데, 이러한 용법들이 제시되는 양상은 교재마다 차이를 보인다. 지시관형사 ‘이, 그, 저’와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은 공통적으로 화맥지시, 문맥지시, 상맥지시의 용법을 갖는데, 이 가운데 이들을 문법항목으로 다루고 있는 4권의 교재들

13) 본고의 분석대상 교재들이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교재들이임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분석 결과는 10년 전 수행된 박선희(2008)의 교재 분석 결과와 다르지 않다.

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지고 있는 용법은 담화 공간 속에 존재하는 대상을 가리키는 화맥지시의 용법으로, [이], [그], [저]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가 중점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서울』과 『연세』에서는 화맥지시 외에도 문맥지시와 상맥지시의 용법에 대해 언급하고 있으나, 『서강』에서는 화맥지시와 문맥지시만 제시하고 있으며 『이화』에서는 화맥지시만을 제시하고 있다.

두 가지 이상의 용법을 다루는 교재의 경우, 교재에 따라 한 단원 내에서 여러 용법이 모두 다루어지기도 하고 단원을 달리하여 다루어지기도 한다. 『연세』의 경우, 지시관형사 ‘이, 그, 저’를 다루면서 이 세 가지 용법에 대해 모두 언급하고 있는데, 제시 순서에 있어서는 화맥지시의 용법을 우선적으로 제시하고, 이후에 문맥지시와 상맥지시의 용법을 제시하고 있다.¹⁴⁾ 『서울』의 경우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을 다룰 때 화맥지시의 용법 외에 문맥지시의 용법에 대해서도 함께 제시하고, 이후에 지시관형사 ‘이, 그, 저’를 다룰 때 이 두 가지 용법을 다시 제시한 후 추가적으로 상맥지시의 용법에 대해서도 제시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¹⁵⁾ 화맥지시와 문맥지시의

14) 구체적으로, ‘이’에 대해서는 “This adnominal form is used in front of a noun to refer to something close to the speaker. It is also used to refer to the fact just mentioned.”와 같이 화맥지시와 문맥지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서는 “This adnominal form is used in front of a noun to refer to something close to the listener. It can also be used to refer to something that the speaker and the listener both know or the fact mentioned before.”와 같이 화맥지시 외에 상맥지시와 문맥지시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저’에 대해서는 “It is used to refer something that is far from both the speaker and the listener.”와 같이 화맥지시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다. (『연세 한국어』 1-1, p.41)

15) ‘이것, 그것, 저것’의 화맥지시 용법은 “‘이것’은 화자로부터 가까운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그것’은 청자로부터 가까운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 ‘저것’은 화자와 청자로부터 먼 것을 지칭할 때 사용한다.”로 설명되어 있으며, 문맥지시 용법은 ‘그것’과 관련하여 “‘그것’은 앞에서 이미 제시되어 청자가 알고 있는 것을 다시 언급할 때도

용법만을 제시하는 『서강』의 경우, 1급에서 지시대명사 ‘이것’과 ‘저것’만을 다룰 때 화맥지시의 용법만을 일차적으로 제시하고, 2급에서 지시관형사 ‘이, 그, 저’ 아래에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까지 함께 다룰 때 화맥지시의 용법과 함께 문맥지시의 용법도 제시하고 있다.¹⁶⁾

여러 용법이 제시되는 이들 교재의 경우에도 지시어의 용법 가운데 가장 강조되고 있는 것은 화맥지시의 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담화 공간 속에서 [이], [그], [저]가 어떤 차이를 두고 쓰이는가를 중점적으로 설명하고 다양한 예시 및 연습·활동을 제공하고 있으나, 문맥지시에 대해서는 화맥지시를 제시한 후 부가적으로 제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따라서 연습·활동도 소략하다. 문맥지시는 교재마다 관련 지시어 항목에 차이를 보이는데, 『서울』과 『서강』의 경우에는 ‘그것’, ‘거기’, ‘그’와 같은 [그] 계열 지시어의 문맥지시 용법에 대해서만 설명하고 있으나 『연세』의 경우에는 ‘이’의 문맥지시 용법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상맥지시의 경우 『서울』과 『연세』에서만 다루어지고 있는데, 『서울』에서는 제일 앞에 제시되는 ‘그것’을 제외하고 ‘거기’, ‘그’와 관련하여 설명과 예시를 제공하고 있으며, 『연세』에서는 ‘그’와 관련하여 설명만 제공하고 있다. 두 교재에 모두에서

사용할 수 있다.”로 설명되어 있다.(『서울대 한국어』 1A, pp.225-226) 상맥지시의 용법은 ‘그’와 관련해서만 제시되어 있는데, “‘그’는 앞에서 언급한 사물이나 사람, 또는 생각 속의 사람이나 사물을 가리킬 때도 사용한다.”(『서울대 한국어』 1A, p.242)와 같이 문맥지시의 용법과 함께 설명되어 있다.

- 16) 2급에서 화맥지시의 용법은 “‘이’ is used to refer to a person or an object that is close to the speaker. ‘저’ is used to refer to a person or an object that is not close either the speaker or the listener. ‘그’ is used to refer to a person or an object that is not close to the speaker but close to the listener.”와 같이 설명되어 있으며, 문맥지시의 용법은 “‘그’와만 관련하여 “‘그’ is also used to indicate a person or an object previously mentioned that is not in the presence of either the speaker or the listener at the time of speaking.”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서강 한국어』 2A의 부록 『문법·단어 참고서』, p.19.)

상맥지시와 관련된 연습·활동은 찾아볼 수 없다.

이상과 같이 검토해 보았을 때, 분석대상 교재들은 화맥지시를 위주로 지시어의 용법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지시어 항목들이 초급에 배치되어 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으나 이를 감안하더라도 문맥지시와 상맥지시와 같은 다른 용법에 대한 고려는 다분히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2) 지시어의 형태

4권 교재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문법항목으로 설정한 지시어는 지시관형사 ‘이, 그, 저’뿐이며,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은 교재에 따라 별도의 항목으로 제시하기도 하고 ‘이, 그, 저’를 다루면서 예시나 연습·활동에 포함시켜 다루기도 한다.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의 경우 구어에서 ‘ㅅ’이 탈락한 ‘이거, 그거, 저거’나 조사와 축약되어 ‘이건, 그건, 저건’, ‘이게, 그게, 저게’, ‘이걸, 그걸, 저걸’로 자주 쓰이는데, 이러한 구어형을 처리하는 방식은 교재마다 차이가 있다.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이 지시관형사 ‘이, 그, 저’ 아래에 다루어지는 『연세』와 『이화』의 경우 ‘ㅅ’ 탈락형이나 조사 축약형을 제시하지 않고 ‘이것, 그것, 저것’을 그대로 제시하고 있다. 『서울』에서는 ‘이거, 그거, 저거’와 같은 ‘ㅅ’ 탈락형을 제시하면서도, 조사 축약은 적용하지 않은 ‘이거는, 그거는, 저거는’의 형태로 제시하고 있다. 『서강』에서는 ‘ㅅ’ 탈락에 대한 설명은 없이 조사 축약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하며 ‘이건, 그건, 저건’, ‘이게, 그게, 저게’, ‘이걸, 그걸, 저걸’의 형태를 모두 제시하고 있다.¹⁷⁾

17) 『서강』에서 제공하고 있는 설명은 다음과 같다.(『서강 한국어』 2A의 부록 『문법·단어 참고서』, p.19)

When ‘이것, 저것, 그것’ are used with the subject marker ‘-이’, they are often

IV. 한국어교재 텍스트의 지시어

지시어는 한국어교재에서 명시적으로 목표항목으로 제시될 뿐 아니라, 본문, 듣기 지문, 과제 등 교재 내의 다양한 텍스트에 포함되어 있다. 학습자들은 이러한 교재 내 텍스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한국어 지시어를 접함으로써 한국어 지시어의 용법과 특성을 파악해 나가게 된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한국어교재의 텍스트 내에 포함된 지시어들을 분석하여 유형별, 용법별로 그 출현 양상을 파악한 후, 그 결과를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와 비교 분석함으로써 한국어교재의 텍스트에서 지시어가 적절히 제시되고 있는지 검토해 보고자 한다. 지시어는 문어와 구어에서 형태나 기능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바, 한국어교재 텍스트를 대화 형식의 본문, 듣기 지문 등의 구어텍스트와 산문 형식의 본문, 읽기 자료 등의 문어텍스트로 분류하여 분석하고, 그 결과가 한국어 모어화자의 경우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도 파악해 볼 것이다.

분석대상 교재 5종의 텍스트 어절 수는 총 319,403어절이며, 구어텍스트는 182,137어절, 문어텍스트는 137,266어절이다. 비교대상으로 삼는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로는 민경모(2008)의 결과를 활용할 것인데, 이 논문에서 구축하여 분석한 말뭉치는 총 401,248어절의 균형말뭉치로, 200,687어절의 구어텍스트와 200,561어절의 문어텍스트로 구성되어 있다.¹⁸⁾

shortened to ‘이게, 저게, 그게’. Similarly, when ‘이것, 저것, 그것’ are used with the object marker ‘-을’, they are often shortened to ‘이걸, 저걸, 그걸’. When ‘이것, 저것, 그것’ are used with the topic marker ‘-은’, they are often shortened to ‘이건, 저건, 그건’.

18) 민경모(2008)의 구어텍스트는 독화, 방송 대화, 뉴스, 강의/강연/설교/주례, 전화 통화, 대화의 6장르로 구성되어 있으며, 문어텍스트는 일기, 작문, 극본/만화 메일/편지, 채팅, 산문텍스트의 6장르로 구성되어 있다.

1. 지시관형사

한국어교재 텍스트에서 지시관형사 ‘이, 그, 저’¹⁹⁾의 출현빈도를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의 출현빈도와 비교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2〉 지시관형사의 출현빈도 비교

지시 관형사	모어화자 자료		한국어교재	
	출현빈도	1,000어절당 출현빈도	출현빈도	1,000어절당 출현빈도
이	2,013	5.0	1,371	4.3
그	3,844	9.6	1,630	5.1
저	289	0.7	37	0.1
합계	6,146	15.3	3,038	9.5

위의 표를 보면 지시관형사의 출현빈도는 한국어교재에서 절대적으로 더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모어화자 자료가 한국어교재보다 약 8만 어절이 크다는 점을 감안하여 1,000어절당 출현빈도를 계산해도, 모어화자 자료에서는 15.3회, 한국어교재에서는 9.5회 쓰여 한국어교재가 모어화자 자료보다 지시관형사가 더 적게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이>저’의 순으로 쓰인 것은 두 자료가 같으나, ‘그’의 비중은 1,000어절당 9.6회, 5.1회로 차이가 크다.

지시관형사 ‘이, 그, 저’는 문맥지시, 연결지시, 화맥지시, 상맥지시의 용법을 갖는데, 각 용법은 지시관형사의 유형과 텍스트범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이’부터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와 한국어교재 텍스트에서의 용법별 빈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19) 지시관형사에는 ‘이런, 그런, 저런’도 있으나, 지시용언과의 구분과 관련하여 논란이 있다. 이에 본고에서 모어화자 자료로 삼는 민경모(2008)에서는 ‘이런, 그런, 저런’을 지시용언의 일부로 일괄 처리하는바, 정확한 비교를 위해 본고에서도 ‘이런, 그런, 저런’을 제외한 ‘이, 그, 저’만을 지시관형사에서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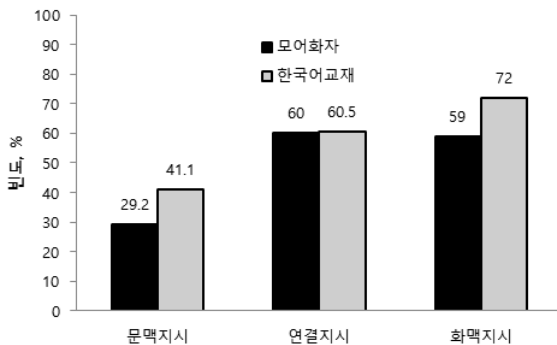
〈표3〉 지시관형사 ‘이’의 용법별 출현빈도 비교

용법	모어화자 자료			한국어교재		
	구어	문어	합계	구어	문어	합계
문맥지시	204	495	699	234	336	570
연결지시	30	20	50	41	22	63
화맥지시	747	512	1,259	531	207	738
상맥지시	5	0	5	0	0	0
범주별빈도	986	1,027	2,013	806	565	1,371

위의 표에서 지시관형사 ‘이’의 용법별 출현빈도는 ‘화맥지시>문맥지시>연결지시’의 순으로 두 자료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한국어교재의 경우 상맥지시의 용법으로 쓰인 예는 찾아볼 수 없다.

텍스트범주별로 살펴보면, 두 자료 모두에서 문맥지시의 용법은 문어에서 더 많이 쓰이고 연결지시와 화맥지시의 용법은 구어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용법별로 구어의 비중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²⁰⁾

〈그림1〉 지시관형사 ‘이’의 용법별 구어 비중 비교



연결지시 용법의 경우 두 자료에서 구어의 비중이 거의 같은 것으로 파

20) 상맥지시의 용법은 한국어교재에서 보이지 않아 제외하였다.

약된다. 문맥지시 용법은 구어의 비중이 낮는데, 한국어교재에서는 모어화자 자료에 비해 구어의 비중이 11.9% 더 크게 나타났다. 화맥지시 용법은 모어화자 자료에서 문어보다 구어의 비중이 더 높는데, 한국어교재에서는 이보다 13% 정도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한국어교재에서 문어적 용법인 문맥지시의 문어성이 덜 드러나고, 구어적 용법인 화맥지시의 구어성은 더 드러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와 한국어교재 텍스트에서 지시관형사 ‘그’의 용법별 빈도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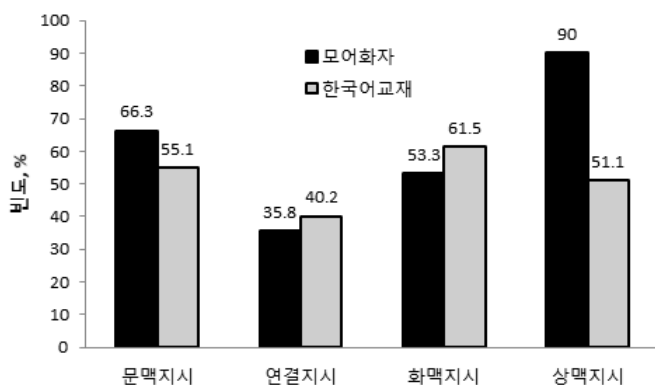
〈표4〉 지시관형사 ‘그’의 용법별 출현빈도 비교

용법	모어화자 자료			한국어교재		
	구어	문어	합계	구어	문어	합계
문맥지시	1,908	972	2,880	626	511	1,137
연결지시	280	502	782	174	259	433
화맥지시	65	57	122	8	5	13
상맥지시	54	6	60	24	23	47
범주별빈도	2,307	1,537	3,844	832	798	1,630

지시관형사 ‘그’의 용법별 출현빈도는 모어화자 자료의 경우 ‘문맥지시>연결지시>화맥지시>상맥지시’의 순으로 나타나나, 한국어교재의 경우 ‘문맥지시>연결지시>상맥지시>화맥지시’의 순으로 나타나 화맥지시와 상맥지시의 비중에서 차이를 보인다.

지시관형사 ‘이’와 마찬가지로 텍스트범주별로 살펴보았을 때 두 자료의 양상은 같다. 다른 용법들은 구어에서 더 많이 쓰이고, 연결지시의 용법만 문어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비중의 차이를 용법별 구어의 비중을 중심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2〉 지시관형사 ‘그’의 용법별 구어 비중 비교



위 그래프를 살펴보면 각 용법 가운데, 모어화자 자료와 한국어교재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맥지시의 용법이다. 모어화자 자료에서는 상맥지시의 용법이 대부분 구어에서 쓰이는데, 한국어교재에서는 구어와 문어에서 거의 같은 비율로 쓰여 그 구어성이 잘 드러나지 않고 있다. 문맥지시의 경우 모어화자 자료에서 구어의 비중이 더 높은 용법인데, 한국어교재에서도 구어의 비중이 더 크지만 이보다는 11.2% 낮게 나타나고 있다. 모어화자 자료에서 문어적 용법인 연결지시의 경우, 한국어교재에서도 문어에서의 비중이 더 높으나 모어화자 자료보다는 낮다. 화맥지시의 경우 모어화자 자료에서는 문구어의 비중이 비슷하나 한국어교재에서는 구어의 비중이 10% 이상 더 높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와 한국어교재 텍스트에서 지시관형사 ‘저’의 용법별 빈도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5〉 지시관형사 ‘저’의 용법별 출현빈도 비교

용법	모어화자 자료			한국어교재		
	구어	문어	합계	구어	문어	합계
문맥지시	1	0	1	0	0	0
연결지시	0	0	0	0	0	0
화맥지시	179	106	285	30	7	37
상맥지시	3	0	3	0	0	0
범주별빈도	183	106	289	30	7	37

지시관형사 ‘저’는 모어화자 자료에서 대부분 화맥지시의 용법으로만 사용되는데, 한국어교재에서는 다른 용법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화맥지시의 용법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화맥지시 용법 내에서 구어와 문어의 비중을 보면, 모어화자 자료에서 구어가 62.8%(179회)의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한국어교재에서는 81.1%(30회)의 비중을 차지하여 한국어교재가 화맥지시를 실제 용법보다 훨씬 더 구어적 용법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시관형사 ‘이, 그, 저’에 대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출현빈도를 비교하였을 때 한국어교재에서는 모어화자 자료보다 지시관형사 ‘이, 그, 저’가 더 적게 사용되었다. 또한 한국어교재에서는 지시관형사 ‘이, 그, 저’ 가운데 ‘그’의 출현빈도가 낮게 나타난다. 용법별로 살펴보았을 때 모어화자 자료에서는 나타나나 한국어교재에서는 쓰이지 않은 용법은 ‘이’의 상맥지시 용법, ‘저’의 문맥지시 용법과 상맥지시 용법이다. 이들 용법은 모어화자 자료에서도 빈도가 매우 낮은 용법들로, 한국어교재에서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용법별 텍스트범주 경향을 고려하여 분석하였을 때 한국어교재에서 지시관형사 ‘이, 그, 저’는 모어화자 자료에 비해 대부분의 용법에서 구어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나, ‘그’의 경우 구어적 용법인 상맥지시의 용법에서 구어성이 상대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나며, 역시 구어적 용법인 문맥지시의 구어성도 낮게 나타난다.

2. 지시대명사

1) ‘이것’, ‘그것’, ‘저것’

한국어교재 텍스트에서 지시관형사 ‘이것, 그것, 저것’²¹⁾의 출현빈도를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의 출현빈도와 비교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6〉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의 출현빈도 비교

지시 관형사	모어화자 자료		한국어교재	
	출현빈도	1,000어절당 출현빈도	출현빈도	1,000어절당 출현빈도
이것	1,305	3.3	277	0.9
그것	1,892	4.7	369	1.2
저것	88	0.2	22	0.1
합계	3,285	8.2	668	2.1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은 1,000어절당 모어화자 자료에서는 8.2회, 한국어교재에서는 2.1회 쓰여 모어화자 자료에서 지시대명사가 4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그것>이것>저것’의 순으로 쓰인 점 은 같고, ‘저것’의 빈도가 낮은 것은 동일하다.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은 화맥지시, 문맥지시, 상맥지시의 세 가지 용법을 갖는데, 우선 ‘이것’부터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와 한국어교재 텍스트에서의 용법별 빈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21) 여기에서 다루는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은 ‘이거, 그거, 저거’와 같은 ‘ㅆ’ 탈락형, ‘이건, 그건, 저건’, ‘이게, 그게, 저게’, ‘이걸, 그걸, 저걸’과 같은 조사축약형을 포함한 것이다. 한국어교재에서 ‘ㅆ’ 탈락형 및 조사축약형과 관련된 형태의 문제에 관해서는 앞서 III.2.2)에서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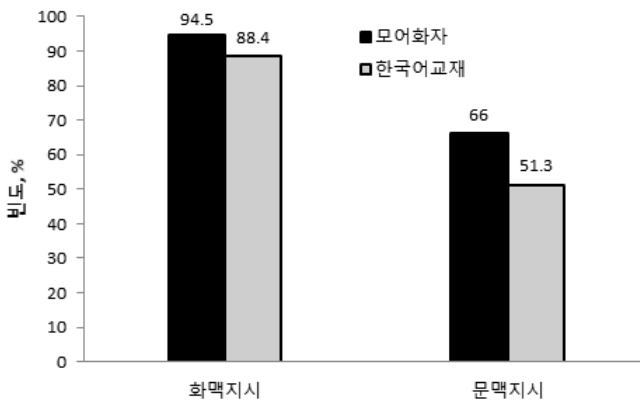
〈표7〉 지시대명사 ‘이것’의 용법별 출현빈도 비교

용법	모어화자 자료			한국어교재		
	구어	문어	합계	구어	문어	합계
화맥지시	739	43	782	145	19	164
문맥지시	342	176	518	58	55	113
상맥지시	5	0	5	0	0	0
범주별빈도	1,086	219	1,305	203	74	277

지시대명사 ‘이것’의 용법별 출현빈도는 ‘화맥지시>문맥지시>상맥지시’의 순으로 두 자료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한국어교재의 경우 상맥지시의 용법으로 쓰인 예는 찾아볼 수 없다.

텍스트범주별로 살펴보면, 두 자료 모두에서 화맥지시의 용법과 문맥지시의 용법이 구어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용법별로 구어의 비중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²²⁾

〈그림3〉 지시대명사 ‘이것’의 용법별 구어 비중 비교



위 그래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화맥지시 용법의 경우 두 자료에서 구

22) 상맥지시의 용법은 한국어교재 텍스트에서 보이지 않아 제외하였다.

어의 비중이 90% 안팎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문맥지시 용법의 경우 모어화자 자료에서 구어의 비중이 66%인데, 한국어교재에서는 이보다 15% 정도 더 낮은 51.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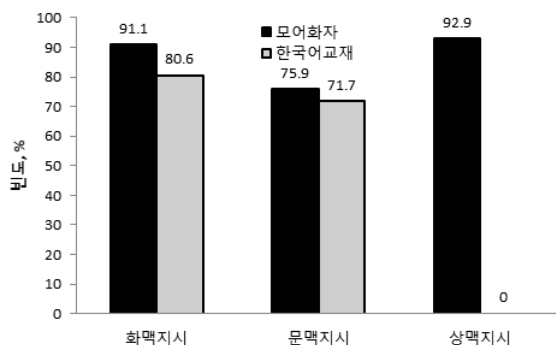
다음으로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와 한국어교재 텍스트에서 지시대명사 ‘그것’의 용법별 빈도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8〉 지시대명사 ‘그것’의 용법별 출현빈도 비교

용법	모어화자 자료			한국어교재		
	구어	문어	합계	구어	문어	합계
화맥지시	51	5	56	25	6	31
문맥지시	1,372	436	1,808	241	95	336
상맥지시	26	2	28	0	2	2
범주별빈도	1,449	443	1,892	266	103	369

지시대명사 ‘그것’의 용법별 출현빈도는 모어화자 자료와 한국어교재 모두에서 ‘문맥지시>화맥지시>상맥지시’의 순으로 나타났다. 모어화자 자료에서 상맥지시는 구어에서 26회나 쓰인 반면에 한국어교재에서는 한 번도 쓰이지 않은 점이 주목할 만하다. 각 용법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비중의 차이를 용법별 구어의 비중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4〉 지시대명사 ‘그것’의 용법별 구어 비중 비교



위 그래프를 살펴보면 세 가지 용법 모두 모어화자 자료에서 구어성이 높은 용법임을 알 수 있다. 이 가운데 두 자료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상맥지시의 용법이다. 모어화자 자료에서는 상맥지시의 용법이 대부분 구어에서 쓰이는데, 한국어교재에서는 구어에서 한 번도 쓰이지 않아 그 구어성이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구어적 용법인 화맥지시와 문맥지시의 경우 한국어교재는 모어화자 자료보다 구어의 비중이 조금씩 낮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와 한국어교재 텍스트에서 지시대명사 ‘저것’의 용법별 빈도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9〉 지시대명사 ‘저것’의 용법별 출현빈도 비교

용법	모어화자 자료			한국어교재		
	구어	문어	합계	구어	문어	합계
화맥지시	64	15	79	21	1	22
문맥지시	9	0	9	0	0	0
상맥지시	0	0	0	0	0	0
범주별빈도	73	15	88	21	1	22

지시대명사 ‘저것’은 모어화자 자료에서 대부분 화맥지시의 용법으로 사용되고 일부 문맥지시의 용법이 보이는데, 한국어교재에서는 다른 용법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화맥지시의 용법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화맥지시 용법 내에서 구어와 문어의 비중을 보면, 모어화자 자료에서 구어가 81.0%(64회)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한국어교재에서는 95.5%(21회)의 비중을 차지하여, 한국어교재가 화맥지시를 훨씬 더 구어적 용법으로 제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에 대한 이상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교재에서는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의 출현빈도가 모어화자 자료보다 낮게 나타난다. 용법별로 살펴보았을 때 모어화자 자료에서

는 나타나나 한국어교재에서는 쓰이지 않은 용법은 ‘이것’의 상맥지시 용법, ‘저것’의 문맥지시 용법이다. 이들 용법은 모어화자 자료에서도 빈도가 매우 낮은 용법들이다. ‘그것’의 상맥지시 용법은 모어화자 자료 중 구어에서 빈도가 상당히 높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재에서는 단 한번도 쓰이지 않았다.²³⁾ 용법별 텍스트범주 경향을 분석하였을 때 모어화자 자료에서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은 모든 용법에서 구어의 비중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는데, 한국어교재의 경우 ‘저것’의 화맥지시 용법을 제외하고는 모두 구어의 비중이 모어화자 자료에서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²⁴⁾

2) ‘여기’, ‘거기’, ‘저기’

한국어교재에서 지시대명사 ‘여기, 거기, 저기’의 출현빈도를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의 출현빈도와 비교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10〉 지시대명사 ‘여기, 거기, 저기’의 출현빈도 비교

지시 관형사	모어화자 자료		한국어교재	
	출현빈도	1,000어절당 출현빈도	출현빈도	1,000어절당 출현빈도
여기	659	1.6	331	1.0
거기	559	1.4	167	0.5
저기	55	0.1	45	0.1
합계	1,273	3.2	543	1.7

위의 표를 보면 모어화자 자료에서의 ‘여기, 거기, 저기’의 출현빈도가 한국어교재에서의 출현빈도의 2배가 넘음을 알 수 있다. 1,000어절당 출현

23) 이는 지시관형사 ‘그’의 상맥지시 용법에서 구어성이 낮게 나타난 것과 일맥상통한다.

24) 이는 지시관형사 ‘이, 그, 저’가 한국어교재에서 모어화자 자료에 비해 대부분의 용법에서 구어성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것과 반대되는 현상이다.

빈도를 계산해도, 모어화자 자료에서 2배 가까이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여기>거기>저기’의 순으로 쓰인 점, ‘저기’가 매우 낮은 빈도로 쓰인 점은 두 자료가 같다.

지시대명사 ‘여기, 거기, 저기’는 화맥지시, 문맥지시 외에 텍스트지시의 용법을 갖는데, 이러한 용법은 지시대명사의 유형과 텍스트범주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우선 ‘여기’부터 모어화자 자료와 한국어교재에서의 용법별 빈도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11〉 지시대명사 ‘여기’의 용법별 출현빈도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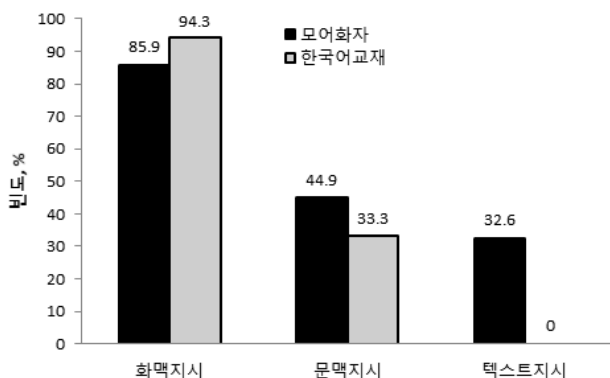
용법	모어화자 자료			한국어교재		
	구어	문어	합계	구어	문어	합계
화맥지시	450	74	524	265	16	281
문맥지시	40	49	89	13	26	39
텍스트지시	15	31	46	0	11	11
범주별 빈도	505	154	659	278	53	331

지시대명사 ‘여기’의 용법별 출현빈도는 ‘화맥지시>문맥지시>연결지시’의 순으로 두 자료에서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만 한국어교재의 경우 구어에서 텍스트지시의 용법으로 쓰인 ‘여기’를 찾아볼 수 없다.

텍스트범주별로 살펴보면, 두 자료 모두에서 텍스트지시의 용법은 문어에서 더 많이 쓰이고 화맥지시와 문맥지시의 용법은 구어에서 더 많이 쓰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용법별로 구어의 비중을 중심으로 비교해 보이면 다음과 같다.²⁵⁾

25) 상맥지시의 용법은 한국어교재 텍스트에서 보이지 않아 제외하였다.

〈그림5〉 지시대명사 ‘여기’의 용법별 구어 비중 비교



두 자료의 차이가 가장 큰 것은 텍스트지시의 용법으로, 모어화자 자료의 경우 지시대명사 ‘여기’의 32.6%가 텍스트지시의 용법으로 쓰였으나 한국어교재의 경우 이러한 용법의 ‘여기’는 단 1회도 쓰이지 않았다. 화맥지시 용법은 모어화자 자료에서 구어의 비중이 85.9%인데, 한국어교재에서는 이보다 더 높은 94.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맥지시의 용법은 모어화자 자료에서 구어의 비중이 44.9%로 문어에서의 비중이 더 높은데, 한국어교재에서는 구어의 비중이 이보다 낮은 33.3%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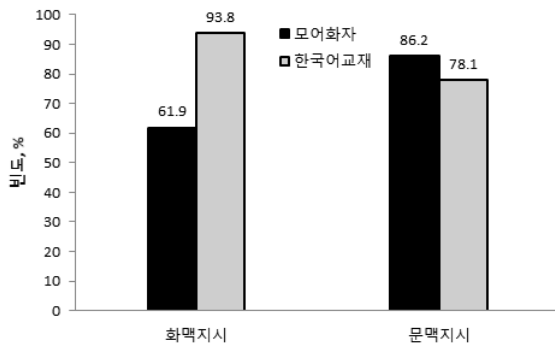
다음으로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와 한국어교재 텍스트에서 지시대명사 ‘거기’의 용법별 빈도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12〉 지시대명사 ‘거기’의 용법별 출현빈도 비교

용법	모어화자 자료			한국어교재		
	구어	문어	합계	구어	문어	합계
화맥지시	13	8	21	15	1	16
문맥지시	464	74	538	118	33	151
텍스트지시	0	0	0	0	0	0
범주별 빈도	477	82	559	133	34	167

지시대명사 ‘거기’의 용법별 출현빈도는 두 자료 모두 문맥지시가 화맥 지시보다 더 높으며, 텍스트지시의 용법은 두 자료 모두에서 보이지 않는다. 텍스트범주별로 살펴보면, 화맥지시와 문맥지시 모두 구어에서의 비중이 더 크다. 그 구체적인 비중의 차이를 용법별 구어의 비중을 중심으로 보이면 다음과 같다.

〈그림6〉 지시대명사 ‘거기’의 용법별 구어 비중 비교



위 그래프를 살펴보면 각 용법 가운데, 화맥지시의 용법에서 두 자료의 차이가 더 크다. 모어화자 자료에서 구어의 비중이 한국어교재보다 30% 이상 더 높다. 문맥지시의 경우 모어화자 자료에서 구어의 비중이 86.2%로 상당히 높은데, 한국어교재에서도 구어의 비중이 높지만 이보다는 낮은 78.1%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와 한국어교재 텍스트에서 지시대명사 ‘저기’의 용법별 빈도를 비교해 보면 아래와 같다.

〈표13〉 지시대명사 ‘저기’의 용법별 출현빈도 비교

용법	모어화자 자료			한국어교재		
	구어	문어	합계	구어	문어	합계
화맥지시	46	8	54	42	3	45
문맥지시	0	0	0	0	0	0
텍스트지시	1	0	1	0	0	0
범주별 빈도	47	8	55	42	3	45

지시대명사 ‘저기’는 모어화자 자료에서 대부분 화맥지시의 용법으로만 사용되는데, 한국어교재에서는 다른 용법은 전혀 제시되지 않고 화맥지시의 용법으로만 사용되고 있다. 화맥지시 용법 내에서 구어와 문어의 비중을 보면, 모어화자 자료에서 구어의 비중은 85.2%(46회)인데 한국어교재에서는 93.3%(42회)로, 한국어교재가 화맥지시를 훨씬 더 구어적인 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지시대명사 ‘여기, 거기, 저기’에 대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어교재에서는 지시대명사 ‘여기, 거기, 저기’의 출현빈도가 모어화자 자료보다 낮게 나타난다. 용법별로는, ‘여기’의 텍스트지시 용법은 모어화자 자료 중 구어에서 적지 않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재에서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용법별 텍스트범주 경향 분석 결과, 한국어교재에서 ‘여기, 거기, 저기’는 거의 대부분의 용법에서 모어화자 자료보다 극단적인 경향을 보여, 구어적이면 더 구어적으로, 문어적이면 더 문어적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문어적 용법인 ‘여기’의 텍스트지시 용법은 구어에서 단 1회로 쓰이지 않았다.

3) ‘이’, ‘그’, ‘저’

한국어교재 텍스트에서 지시대명사 ‘이, 그, 저’의 출현빈도를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와 비교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표14〉 지시대명사 ‘이, 그, 저’의 출현빈도 비교

지시대명사	모어화자 자료		한국어교재	
	출현빈도	1,000어절당 출현빈도	출현빈도	1,000어절당 출현빈도
이	543	1.4	284	0.9
그	672	1.7	309	1.0
저	0	0	0	0
합계	1,215	3.0	593	1.9

지시대명사 ‘이, 그, 저’ 역시 모어화자 자료에서 더 높은 빈도로 쓰였다. 1,000어절당 출현빈도를 계산해도, 모어화자 자료에서는 3.0회, 한국어교재에서는 1.9회 쓰여 모어화자 자료에서 지시대명사 ‘이, 그, 저’가 더 많이 사용된 것으로 파악된다. 두 자료의 양상은 거의 같아서 ‘저’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으며,²⁶⁾ ‘그’가 ‘이’보다 많이 쓰였다.

지시대명사 ‘이, 그’는 모두 문맥지시의 용법으로만 쓰이므로 용법별 분석은 생략하고 ‘이’와 ‘그’로 나누어 텍스트범주별로 출현빈도 및 문어의 비중을 좀 더 자세히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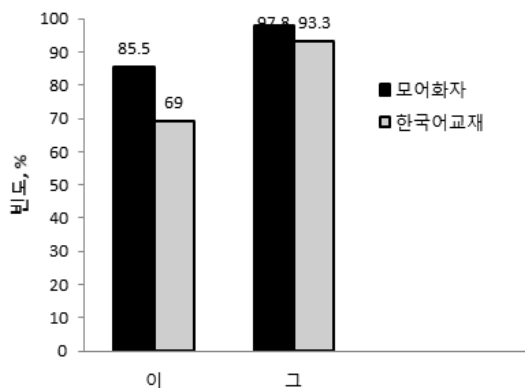
〈표15〉 지시대명사 ‘이, 그’의 출현빈도 비교

지시대명사	모어화자 자료			한국어교재		
	구어	문어	합계	구어	문어	합계
이	79	464	543	88	196	284
그	15	657	672	19	266	285
범주별빈도	94	1,121	1,215	107	462	569

26) 지시대명사 ‘저’는 다음과 같이 사람을 지시할 때 쓰인다.

다른 하나는 저 북성회(北星會, 초기의 공산주의 단체)와 풍뢰회(風雷會, 초기의 아나키스트 단체)의 결별 이래 극렬하게 반목투쟁해 온 중앙집권적 불세미키와의 재결합이다.(중략)원래 저들과 우리는 똑같은 이상의 깃발 아래 출발했다. (민경도 2008:176)

〈그림7〉 지시대명사 ‘이’와 ‘그’의 문어 비중 비교



모어화자 자료에서 지시대명사 ‘이’와 ‘그’는 매우 문어적인 쓰임을 보이는데, 이는 한국어교재에도 반영되어 있으나 <그림7>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다. ‘그’의 경우 모어화자 자료와 한국어교재의 차이가 적으나, ‘이’의 경우 모어화자 자료에서는 두 자료의 차이가 크다. 이는 지시대명사 ‘이’의 문어성이 상대적으로 한국어교재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지시대명사 ‘이, 그, 저’에 대한 이상의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어교재에서는 지시대명사 ‘이, 그, 저’의 출현빈도가 모어화자 자료보다 낮게 나타난다. 다만 그 격차는 1,000어절당 약 1회로, 본고에서 검토 대상으로 삼은 지시대명사들 가운데 가장 작다. 또한 지시대명사 ‘이, 그’는 매우 문어적인 성격을 띠는데, 지시대명사 ‘이’의 경우 모어화자 자료와 한국어교재의 비중 차이가 커서 한국어교재에서 그 문어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V. 결론

본고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이를 토대로 한국어교재에서 지시어와 관련된 개선 방향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지시어가 목표항목으로 설정된 경우, 한국어교재에서 지시어는 초급에 집중적으로 배치되어 있어 초급 이후에 구체적인 설명을 접하기 어렵다. 지시대명사 ‘이, 그, 저’의 경우 대부분의 교재에서 문법항목으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 또한 화맥지시를 위주로 지시어의 용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다른 용법에 대한 고려는 다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분석 결과를 보았을 때, 지시어를 한국어교재에서 명시적으로 목표항목으로 제시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초급 이후에도 지시어 상호 간의 관계나 용법을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유형과 용법을 적절히 배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시대명사 ‘이, 그, 저’를 중·고급에서 목표항목으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학습자들이 지시어의 여러 용법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화맥 지시 외에 문맥지시와 상맥지시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처리가 필요하다.

한국어교재 텍스트의 지시어들을 분석한 결과, 한국어교재 텍스트에서 지시어들은 모두 한국어 모어화자 자료보다 낮은 출현빈도를 보였으나, 출현빈도별 순위는 ‘이, 그, 저(지시관형사)>이것, 그것, 저것>여기, 거기, 저기>이, 그, 저(지시대명사)’ 순으로 같았다. 두 자료 간의 빈도 격차는 지시대명사 ‘이, 그, 저’가 모어화자 자료와 가장 비슷한 빈도로 쓰이고,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이 모어화자 자료와 가장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²⁷⁾ 문어텍스트와 구어텍스트에서의 출현빈도를 분석하였을 때, 한

27) 1,000어절당 출현빈도를 구체적으로 비교하여 보이면 다음과 같다.

국어교재는 대체로 모어화자 자료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모어화자 자료에서는 지시대명사 ‘이, 그, 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어텍스트에서의 출현 빈도가 높는데, 한국어교재의 경우 지시대명사 ‘이, 그, 저’ 외에 지시관형사 ‘이, 그, 저’도 문어텍스트에서의 출현빈도가 구어텍스트에서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용법별로 살펴보았을 때, ‘그것’의 상맥지시 용법과 ‘여기’의 텍스트지시 용법은 모어화자 자료 중 구어에서 빈도가 적지 않게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어교재에서는 단 한 번도 쓰이지 않았다. 용법별로 구어성과 문어성의 측면에서 모어화자 자료와 현저한 차이를 보이는 지시어의 용법은 상대적으로 구어성이 낮게 나타난 지시관형사 ‘그’와 지시대명사 ‘그것’의 상맥지시 용법, 지시대명사 ‘여기’의 텍스트지시 용법, 그리고 지나치게 구어성이 높게 나타난 지시대명사 ‘거기’의 화맥지시 용법이다.

이상의 한국어교재 텍스트 분석 결과에서 얻을 수 있는 교재 개선의 방향은 다음과 같다.²⁸⁾ 첫째, 한국어교재 텍스트에서 지시어의 출현빈도를 전반적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 특히 지시대명사 ‘이것, 그것, 저것’의 경우, 모어화자 자료와의 격차가 크므로 그 빈도를 좀 더 끌어올려야 한다. 둘째,

지시어		모어화자 자료	한국어 교재	빈도 격차
지시관형사	이, 그, 저	15.3	9.5	5.8
	이것, 그것, 저것	8.2	2.1	6.1
지시대명사	여기, 거기, 저기	3.2	1.7	1.5
	이, 그, 저	3.0	1.9	1.1

28) 교재 텍스트를 구성할 때에 모어화자 자료와의 언어적 유사성만을 고려하기는 어렵다. 주제, 상황, 기능과 같은 교수-학습 내용과 관련된 요소, 숙달도, 학습의 용이성과 같은 교수-학습 과정과 관련된 요소 등 교수-학습의 다양한 요소들이 함께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시하는 교재 개선의 방향은 이러한 종합적인 관점에서의 제안으로서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접근법에서 강조되는 자료의 실제성이라는 측면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제안은 한국어교재 텍스트의 언어표현의 실제성 확보와 관련된 제안으로서 의의를 갖는다.

문어텍스트와 구어텍스트에서의 출현빈도와 관련하여, 지시관형사 ‘이, 그, 저’의 문어텍스트 내 빈도를 낮추고 구어텍스트 내 빈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셋째, 개별 지시어의 용법과 관련하여 ‘그것’의 상맥지시 용법, ‘여기’의 텍스트지시 용법도 한국어교재의 구어텍스트에 포함시켜야 한다. 넷째, 개별 지시어의 용법별 텍스트범주 경향과 관련하여, 모어자료와의 차이가 큰 지시관형사 ‘그’와 지시대명사 ‘그것’의 상맥지시 용법의 경우 구어텍스트에서 그 비중을 높여야 하며, 지시대명사 ‘여기’의 텍스트지시 용법의 경우 구어텍스트에서도 그 용법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지시대명사 ‘거기’의 하맥지시 용법은 구어텍스트에서의 비중을 줄이고 문어텍스트에서의 비중을 더 늘릴 필요가 있다.

이상과 같이 본고에서는 지시관형사와 지시대명사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어교재의 지시어를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지시어와 관련된 교재 개선의 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본고에서는 명시적으로 목표항목으로 제시된 지시어들 외에 한국어교재 텍스트에 쓰인 지시어들을 분석하고 이를 모어화자 자료와 비교함으로써 한국어교재의 지시어에 대한 보다 심도 있는 분석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분석대상이 지시관형사와 지시대명사에 한정되어 지시용언을 포함한 지시어 전반의 경향을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지시용언에 대한 분석과 이를 아우르는 지시어 전반에 대한 연구는 다음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 김일웅, 「지시의 분류와 지시사 ‘이, 그, 저’의 쓰임」, 『한글』 178, 한글학회, 1982, pp.53-88.
- 남기십 · 고영근, 『표준국어문법론』, 박이정, 1985/2014.
- 민경모, 「한국어 지시사 연구」,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박선희, 「영어권 한국어 학습자의 지시어 의미 기능 습득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7.
- 박영환, 『지시어의 기능』, 한남대학교 출판부, 1991.
- 신지연, 『국어 지시용언 연구』, 태학사, 1998.
- 안광미, 「중국인 초급 학습자를 위한 지시어 교수방안 연구: 중국어 표현과의 대조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5.
- 양명희, 『현대국어 대용어에 대한 연구』, 태학사, 1998.
- 양명희, 「지시어 오류 분석과 중간언어 의미론: 영어권 학습자 말뭉치를 대상으로」, 『한국어 의미학』 12, 한국어의미학회, 2003, pp.229-253.
- 왕교하,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지시어 기능 발달 양상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왕교하 · 박동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현장 지시어 기능 습득 양상 연구」, 『한국어교육』 22-3, 국제한국어교육학회, 2011, pp.195-233.
- 왕학웅,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지시어 교육 내용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4.
- 장경희, 「국어 지시 표현의 유형과 성능」, 『한국어 의미학』 15, 한국어의미학회, 2004, pp.51-70.
- 장경희, 「지시어 ‘이, 그, 저’의 의미 분석」, 『어학연구』 16,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 1980, pp.167-184.
- 장경희, 「대명사」, 『새국어생활』 12-2, 국립국어연구원, 2002, pp.147-161.
- 장석진, 「지시어 조응」, 『한글』 186, 한글학회, 1984, pp.115-150.
- 조 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지시어 교육 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조효염,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지시어 교육 방안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진은영, 『거주 기간 및 학습 기간에 따른 한국어 지시어 습득 양상 연구: 일본어권 아동 및 청소년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홍연정, 『한국어 학습자들의 지시어 사용 및 오류에 관한 연구: 숙달도 및 모어 변인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가.
- 홍연정, 『한국어 학습자의 모어별 지시어 오류』, 『한국문법교육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2-2, 한국문법교육학회, 2012나, pp.113-149.

Abstract

An Analysis of Demonstratives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Textbooks

- Focusing on demonstrative adnominals and demonstrative pronouns -

Chae, Sookhee

This paper examines various aspects of the demonstratives used in the Korean language education textbooks, especially focusing on the demonstrative adnominals and the demonstrative pronouns. They are suggested intensively in the Korean textbooks for beginners who are learning the language. The demonstrative pronoun 'i, geu, jeo' are seldom suggested in the Korean textbooks. Explanations and examples on the demonstratives are limited to the usage of the context reference. In the dialogues and texts of the Korean textbooks, the demonstratives show a lower frequency than those in the Korean native speaker's corpus. However, they are the same as those of the Korean native speaker's corpus in their frequency order. They also show similar aspects in the frequency concerning textual category of the spoken text and written text. The usages of demonstratives which denote critical differences in the aspect of the text category, are conceptual reference of the adnominal 'geu,' conceptual reference of pronoun 'geugeos,' the text reference of pronoun 'yeogi,' and the situational reference of pronoun 'geogi.'

Key Word: Korean language education, Korean language education textbook,
demonstrative, usage, text, spoken language, written language

채숙희

소속 : 인천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조교수

전자우편 : sukichae@inu.ac.kr

이 논문은 2018년 02월 09일 투고되어
2018년 03월 05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18년 03월 09일 게재 확정됨.